

데스크리서

마카오에서 광주의 미래를 그린다



김 일 환  
편집부국장

마카오 베네시안호텔은 빙벽의 아시아 투어 공연에 온 수천 명의 소녀들, 관광 박람회 기간에 숙박한 유커(遊客·중국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호텔의 규모가 광주 월드컵 축구 경기장의 9배 규모가 된다고 하니 이들이 먹고 마시고 관광하면서 쓰는 돈은 천문학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업무차 이 호텔에 묵으면서 실제로 목격된 카지노의 세계는 충격을 넘어 전율 그 자체였다. 호텔 1층의 상당 부분을 배팅에 300 홍콩달러(한화 4만5000원), 많게는 15000 홍콩달러(한화 22만3000원)가 찰나에 오고 가는 현상이었

플랫폼 전략으로 대박

고도 카지노 호텔이 수없이 많다. 70년대 초반 리스보아 카지노는 필두로 40년 만에 42개의 카지노 호텔이 생겨나 성업 중이다. 마카오를 먹여 살리는 게 카지노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마카오는 40여 년 전만 해도 몰락한 중계무역지였다. 중국에서부터 흘러오는 주강(珠江)이 토해내는 토사로 인해 항구는 제 기능을 상실해 갔으며 무역 선들은 하나 둘 인근 홍콩으로 옮겨 갔다. 중계무역의 주도권을 고스란히 홍콩에 빼앗기고 쇠락의 길을 수밖에 없었다.

마카오가 상전벽해처럼 지금의 상황으로 변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카지노 산업의 성공에 있지만 그 밑바탕에는 근자에 와서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40여 년 전 일찍 눈을 뜬 도시

생존전략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중국이라는 소비 생태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카지노라는 플랫폼을 통해 복합 관광산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오늘날의 대박 성공신화를 쓴 것이다.

플랫폼 전략론의 권위자인 안드레이 학주(Andrei Hagiu)와 히라노 아사시 칼(平野, 敦士カール)은 저서 '플랫폼 전략'에서 이러한 전략에 대해 "관련 그룹을 장(場), 즉 플랫폼에 모아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가깝게 들 수 있는 예는 아이폰 대박을 이어가고 있는 애플의 플랫폼 전략 성공 신화다. 생산품이 전혀 없는 애플이 소비자들 생산자 간의 상호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자서 무형의 가치를 확대 재생산해 낸 것은 이제는 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만큼 혁신적인 일이었다.

광주, 프레임을 다시 짜자

혁신을 꿈꾸고 미래 전략을 세우는 기업이 플랫폼 전략에 집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치열한 경제전쟁을 이겨 나가기 위해서는 혁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는 당장 무한 경쟁 속에 사는 국가와 자치단체도 마찬

가지다. 마카오의 경우 당시에는 개념조차 없던 플랫폼 전략에 눈을 떠 40년 만에 아시아 신흥 강소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국가 또는 도시를 아우르는 롤모델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광주는 어떠한가. 미래의 먹줄거리를 논할 때 광주 하면 딱히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 강점으로 내세우는 문화는 관광과 따로 놓고 실질적으로 시민을 먹여 살리는 일은 몇몇 대기업에 목을 매는 그런 구조다.

도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도시의 공간이 되는 기본적인 프레임부터 다시 짜야 한다. 지금 당장 민·관이 힘을 합쳐 광주의 미래를 그림 준비에 나서야 한다. 감히 제안컨대 광주 도시 혁신 출발의 단초를 플랫폼 전략에서 찾았으면 한다. 플랫폼 전략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광주의 플랫폼의 바탕은 문화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을 매개할 아시아문화전당이 이달 하순이면 공식 개관한다. 이 또한 플랫폼으로써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는 판단이다.

하루빨리 협의체를 만들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더불어 생산품 하나 없는 중계무역지 마카오가 쇠락의 길에서 아시아 강소국이 될 수 있었던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은편칼럼

역사쿠데타와 그 저지선



최 영 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도 차마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정화 제도이다. 그런데 이런 후진적인 제도를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시행하려 하니 그저 말문이 막힐 뿐이다.

정부·여당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대해서 전국의 역사 전공 교수 및 중·고등학교 역사교사 대부분이 이미 반대 및 집필 참여 거부 의견을 표명하였다. 시민사회와 교사, 학생, 아권 등 각계 각층에서도 국정화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11월 3일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확정해 고시하였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는 1961년 5.16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정부를 전복시켰다. 그는 다시 1972년 제2의 쿠데타(유신체제 수립)를 일으켜 반쪽 민주주의마저 완전히 말살해버렸다. 그런 박정희의 잘못을 그의 딸이 역사쿠데타를 통해 은폐하려 하고 있다. 박정희에게는 공과(功過)가 함께 있는 만큼 공은 자랑하고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면서 자신이 아버지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면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을 텐데 말이다.

역사쿠데타의 1단계 작업은 11월 3일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1단계 과정에서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이 있었지만 완벽하게 저지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박근혜 정권은 이미 깊은 내상을 입었다. 곧 착수될 집필과정은 쿠데타의 2단계에 해당한다. 전국의 대다수 역사교수들이 집필 작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2단계 작업은 심하게 비틀거리며 진행될 것이다. 물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만큼 교과서는 분명 만들어질 것이다.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거나 친일·반민주적 사고에 몰든 어용학자들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교과서가 어떤 모습을 가질 지는 상상이 되고도 남는다.

현 집권세력들은 국정교과서를 만든 것으로 자신들의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희희낙락해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다. 교사들에 의해 강력한 2차 저지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국정교과서가 배부된 후 교실에서는 이런 강의가 진행될 것이다. '박정희에게

는 공과(功過)가 함께 있다. 그런데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공만 부각시키고 잘못은 어몰쩍 희석시키기 위해 국민적 저항을 무릅쓰고 역사쿠데타를 강행했다. 어디 한번 그 흔적들을 살펴볼까.' 결국 국정교과서는 교실에서 휴지통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게다가 그 교과서의 수명이 얼마나 되겠는가.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현명하여 추락시킨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된다면 그 수명은 불과 1년 남짓으로 그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박정희와 전두환 독재 정권을 퇴출시킨 경험을 갖고 있다. 국정교과서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이다. 문제는 실패가 명약관화한 역사쿠데타를 시도해 국력을 낭비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대통령의 어리석은 행위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일차적 목적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통령과 그 야류들은 잘못된 전철을 반복하려 한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우리가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공화국의 주체는 국민이라는 점을 똑똑하게 인식시키자.

기고

‘밥도둑’ 굴비



정 기 호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장

다. 어느 날 운이 좋게 굴비를 찢어 도시락에 싸서 간 날은 주위의 모든 친구들의 부러움과 함께 오히려 한점도 못먹고 오는 경우가 추억으로 떠오른다.

조기(助氣) 말린 것을 굴비라 하며 고급 반찬으로 구이, 찜, 조림, 매운탕 등 다양하게 요리할 수 있으며 굴비찜에 고사리는 최고의 궁합 음식이다.

굴비는 그냥 쪽쪽 찢어서 먹기도 하고 고추장 안에 재어 밑반찬으로도 사용하는 우리 선조들의 가장 우수한 개발품이면서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창작품이다. 굴비는 뽀뽀하니 해도 수저 위에 밥을 가득 담고 그 위에 어머니가 찢어주신 오동통한 굴비살점 하나 올려 먹는 게 가장 꿀맛이다. 어린시절 밥 한순간에 '보리굴비'를 찢어주시던 어머니 생각이 문득난다.

과거에는 굴비를 찬성질의 보리 속에 넣어두고 저장을 했다해서 '보리굴비'라고 이름이 붙기도 했다. 굴비는 고려 17대 인종때 난을 일으킨 이자겸이 영광으로 귀양을 왔다가 그맛이 너무나 뛰어나 임금에게 진상하면서 "비굴하게(匪) 살지 않겠다(非)"는 의미로 굴비라는 이름을 붙인 이래 1000여년간 사용하고 있다.

그 덕에 영광은 전국유일의 굴비산업 특구로서 경제를 끌어가고 있다. 법성포에는 500여개의 굴비가게가 온시대를 가득 채우고 있고 가게마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엷은 굴비를 보면 가을의 풍성한 과 넉넉함을 넘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또하나의 진풍경이자 관광 자원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히는 조기는 모두 13여종인데 그 중 유명하게 잡조기이다. 잡조기는 민어과에 속하며 석어(石首魚)라고도 한다. 산란을 위해 동지나 해역에서부터 추자도와 흑산도를 거쳐 연평도까지 북상하면서 법성포 근해 칠산 앞바다에서 4~5월경 포획사리 때 산란한다. 이 때문에 황금빛 윤기가 있고 알이 가득 들어있어 '오사리 굴비' 또는 '알배기 굴비'라하며 최고의 맛으로 친다. 이 시기의 잡조기로 만든 굴비가 영광굴비다.

조기(助氣)는 기를 북돋아 준다해서 생김 이름이다. 현실 생선으로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해서 예부터 몸이 쇠약하거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A가 연어나 고등어보다도 3배 이상(50.0㎍/100g) 함유돼 있어 암과 질병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피부미용에도 아주 좋다.

또한 지방질이 적어 소화가 잘됨으로 발육기 어린이나 소화기관이 약한 노인에게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각광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일반어종에는 거의 없는 염산(55.00㎍/100g)이 풍부해서 태아의 정상적 발육을 위해 임신부가 꼭 드셔야 할 필수 음식이다.

영광에 오면 반드시 먹어야하는 음식이 굴비정식이다. 그래야 '천년 영광'의 향수를 느낄 수 있다. 노릿노릿한 굴비에 영광의 또하나 명품인 모시羹(물국)이 나오면, 조기매운탕에 갖가지 밑반찬들이 상다리 휘게 나온다. 인스턴트에 익숙한 우리 입맛을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다.

영광에 가지는 못하더라도 오늘 저녁에는 온가족과 함께 같이 통통한 굴비를 굽고 얼얼한 조기 매운탕으로 속도 달래고 영광도 보충하고 한국의 맛과 가족의 정을 함께 느껴보면 어떨까?

社說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일단 국비 확보 총력을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최가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광주시가 정부에 요청한 내년도 예산에 단 1원도 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회 반납도 고려해야 할 판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2일 공강회의에서 "국비 확보 없이 세계 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윤시장은 시가 수영선수권대회를 준비하는 첫 단계로 내년 국비 46억 원을 신청했지만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난관에 봉착했다"며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윤시장의 고민은 시의 재정 상황과 맞물려 있다. 광주시의 2014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6.59%로 전국 평균(4.60%)보다 높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인천과 세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실정이다. 광주U대회를 치르려면 플랫폼으로써 충분한 가치를 갖는다는 판단이다.

하루빨리 협의체를 만들어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더불어 생산품 하나 없는 중계무역지 마카오가 쇠락의 길에서 아시아 강소국이 될 수 있었던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부담이다. 더욱이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사업비가 애초 1200억 원에서 약 2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돼 엄청난 데 달친 격이다.

그렇다고 발을 빼기도 녹록치 않다. 대회를 포기할 경우 국제수영연맹에 위약금으로 50만 달러(한화 50억 원)를 지급해야 한다. 분할 납부로 지급하고 있는 개최권료(총 200만 달러)일부와 유지를 위해 투입된 수십억 원대의 비용까지 계산하면 무려 100억여 원을 날려야 할 판이다. 또 국제적인 신인도 하락이나 U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명성의 훼손 등 무형의 손해까지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대회가 제 4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예산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것은 국내 국제대회 사상 유례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정부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회 개최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따라서 정치권과 광주시는 일단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비엔날레·문화전당 상생 협력 바람직하다

광주비엔날레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동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비엔날레와 사실상 운영 원년에 들어가는 문화전당의 제휴는 광주 문화의 역량과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미 서 달 전에도 비엔날레가 보유한 문화콘텐츠를 전당에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바 있다. 그러나 금명간 (재)광주비엔날레가 협업 프로젝트를 제안키로 했다고 한다. 문화전당 측도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안 내용은 꽤 구체적이다. 내년 제 11회 비엔날레 행사(9월2일 ~ 11월6일) 때 일부 작품을 문화전당 창조원에 전시한다는 것이다. 예술극장 등지에서 예술가들의 퍼포먼스 추진도 협의할 예정이다. 협력이 합의되면 아시아 예술가들과 비엔날레 참여 작가들이 문화전당에서 작가 스튜디오를 운영할 수 있다. 관객 편의를 위해 비엔날레와

문화전당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는 입장권 발매와 두 곳을 오가는 셔틀버스 운행도 검토 중이다.

시민들 역시 양측의 긴밀한 협력을 바라던 터여서 지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공조가 원활해지면 광주가 문화수도로 가는 발걸음이 한결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성년기에 접어든 광주비엔날레의 브랜드 파워와 국내 단일 최대 규모 건축물인 문화전당이 어우러져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년기에 접어든 비엔날레는 새로운 활장을 모색할 수 있고, 문화전당은 초기 부족한 콘텐츠를 보강할 수 있다.

물론 문화전당 전시 공간을 재배치하고 필요한 예산을 분담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동반 발전'이라는 공감대가 확고하다면 사소한 갈등을 접고 큰 목표인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엔날레와 문화전당이 손 맞잡는 것은 광주가 아시아 문화수도로 건너가는 데 필요한 징검다리다.

無 等 鼓

2010년 11월 1일 장흥군 관산을 천관산 인근에 배우 김희선이 나타났다. 드라마 '신의' 촬영을 위한 세트장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통합의 학박람회장 바로 옆에 들어선 세트장 준공식에는, 김희선 외에도 연출을 맡아 제작을 총 감독하는 김중학 피디(PD) 등 내로라하는 유명인사가 자리를 함께했다.

드라마 '신의'를 장흥에서 촬영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중국 송나라의 의학명서 '신의보구'이란 책을 고려로 가져 온 임의(任懿)의 본관이 장흥 관

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013년 7월 23일 세상을 등졌다. 김씨는 드라마 '신의' 제작에 1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의 세트장이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상의학 체험랜드를 짓는다 해서 지원한 국비를 장흥군이 신의 세트장 건설에 썼다며 국비를 되돌려 줄 것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장흥군은 신의 세트장을 짓는 데 24억 원의 군비가 지 보였다.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다 몰려야 할 판이다. 대학을 졸업했던 신의 세트장이 눈물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신의’ 세트장

장필수 사회부장 bung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